

大學의 理念과 主人意識



崇田大 總長 金 致 善

大學은 본래 教授와 學生으로 이루어진 單一한 커뮤니티로 출발했다. 그러나 오늘날의 대학은 그 目的과 機能이 多樣하고 巨大한 機構로 변해 왔다. 오늘날의 大學은 規模에 있어서만 커다란 변화를 한 것이 아니라 그 理念에 있어서도 많은 變化를 가져왔다.

大學教育은 사회의 知性的 風潮를 일으키고 公共精神을 함양하며, 國民氣風을 淨化하고, 大衆의 熱望에 대해서 確고한 目的을 提示하며, 時代의 理念을 淨化하고 私生活의 人間關係를 세련되게 하는 것을 目的으로 하여 왔다.

그러나 이와 더불어 오늘날의 대학은 實用的 知識과 問題解決의 추구에 獻身하는 기관으로 변하여 가고 있다. 大學은 계속 변화되어, 심오한 思想과 영원한 眞理를 탐구하는 곳이 아니라 實用的 知識만을 추구하고 專門化된 職業이 요구하는 技能을 습득하는 곳으로 變質되어 가고 있다. 특히 오늘날의 技術文明과 産業社會는 대학교육의 이러한 경향에 拍車를 가하고 있다.

오늘날의 대학은 人文知識을 부여하고 古典을 통해서 영원한 眞理를 가르치며 순수한 自然科學의 眞理를 연구하는 데 專念했던 傳統의 大學으로부터 專門職에 필요한 특수한 實用的 지식과 技能만을 가르치는 대학으로 변했다. 이러한 변화는 직업의 專門化로 인해 전문적 지식과 기능을 요구하게 된 現代産業社會가 가져온 자연스러운 추세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대학교육이 技能教育과 專門職教育에만 치중할 때, 그러한 전문적 지식과 기능을 道具로서 사용하는 主體인 人格의 教育 혹은 人間教育을 소홀히 하거나 忘却하기가 쉽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生의 理念과 價値를 소홀히 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理念과 價値觀이 결여된 지식과 기술은 얼마든지 誤用되고 惡用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오늘날의 대학은 人文教育에 중점을 두는 傳統的 대학교육이 추구했던 人間教育과 산업사회의 대학교육이 치중하는 技能教育의 調和를 추구해야 한다. 大學教育의 이러한 두 가지 기능의 調和가 바로 우리나라 대학이 추구하는 教育的 理念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대학은 오늘의 産業社會가 요구하는 專門的 知識과 技能을 학생들에게 공급하는 데 힘써 왔다. 그리고 또 앞으로도 그러한 努力을 계속할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나라 大學은 단순히 전문적 지식과 기능의 供給만을 추구하는 대학이 아니라 그것을 民族과 人類를 위해서 善하고 建設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올바른 人生觀과 價値觀을 학생들의 가슴 속에 심어 주는 人格教育과 人間教育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이러한 人間教育의 實現을 항상 염두에 두고 대학은 敎養教育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그것을 實際教育에 응용해야 한다.

우리 대학은 道德 및 價値觀 不在의 산업사회에 道德 재건의 役軍이 되어야 한다. 不信과 偏見이 팽배해 있는 현실사회 속에서 대학은 良心과 正義로운의 本産이 되어야 하며 精神的인 마음의 本郷이어야 한다. 아무리 知識과 技術이 先進國을 따라 잡았다고 해도 道德과 精神에 있어 落後되었고 腐敗와 不條理가 社會 속에 만연되어 있다면, 그것은 先進國이기는 커녕 中進國도 되지 못한다.

우리 大學은 우리 사회 속에 道德의 魂을 불어넣고 物質의 奴隸가 아니라 그 물질을 民族과 人類의 福祉를 위해 바로 管理하고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文化를 創出할 役軍들을 배출해 내야 한다.

오늘의 大學現實을 살펴볼 때 대학은 病들어 있고, 대학의 앞날은 밝다고만 말할 수 있는 與件이 아니다. 그렇다고 대학은 그냥 座視하고만 있을 수도 없다. 이런 어려운 때일수록 대학의 現實을 直視하여 오늘의 대학을 再建하고 發展·成長시키며 內實을 期하는 데 앞장서야겠다. 學生들과 對話를 통해 解決할 것은 해결하고 改善할 것은 개선해 나가는 意志와 努力을 앞장서서 보여야 할 때다.

學生들은 4년간의 과정을 마치고 卒業하여 대학을 떠나 가게 되고, 總長과 교수도 停年이 되면 대학을 떠나 가게 된다. 그러나 大學은 永遠하다. 앞으로 대학은 經營이 正常化되고, 敎授法이 개선되어 知識의 綜合體로서 여러 분야의 專門知識이 서로 協同하고 相互補完될 때 진정한 發展을 가져올 수 있다고 본다. 大學은 高等技能人を 양성하는 專門的 知識의 場일 뿐 아니라 人格교육을 실시하는 道場이 되어야 한다.

大學의 主人은 그 대학을 사랑하며 헌신하며 도와 주는 모든 이들의 것이다. 어려운 때일수록 대학을 가꾸고 일구는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時急한 것 같다. ☆